

특별기획

# 고품질 누에 생산 기틀 마련

### 부안군, 7동 184m<sup>2</sup> 규모로 농가 공급... 평균소득 23% 이상 증가 기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남선)는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및 오디뱅크 활용한 누에사육 기술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누에 사육시설인 표준잡실 2동과 간이잡실 12동을 지원해 고품질 누에를 다 회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군은 누에 사육 표준 잡실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 원씩을 들여 227m<sup>2</sup> 규모로 2동 지원했으며 간이잡실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및 오디뱅크 활용한 누에사육 기술시범 사업으로 동당 2000만 원씩을 투자해 지난해 5동 올해 7동이 184m<sup>2</sup> 규모로 각 농가에 공급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고부가가치 웰빙식 이에 따라 군은 고부가가치 웰빙식 품으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5령 3일 누에(4번 잠을 잔 뒤 3일 차 된 누에)·알에서 부화한 뒤 20일 사육)를



최적의 사육환경에 맞는 온·습도 환경을 제어해 다 회 다량으로 생산하려고 이번 최신 사육시설을 지원. 위생적이고 고품질 누에를 사육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 왔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누에의 정결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누에사육 기반이 조성됐다"며 "사육횟수를 기존 2~3회에서 4~6회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누에사육 기반이 조성됐다"며 "사육횟수를 기존 2~3회에서 4~6회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농촌 지도자 대회에서

### 김석준씨 산업포장 수상 영예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시종합 운동장 일원에서 "희망찬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9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서 김석준 전 회장이 농업 농촌 유지 발전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73년부터 40여 년 동안 농업 농촌을 위해 후계농업인력육성, 농촌주거환경정비 및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실천하며 농촌지도자로서 시·실지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해왔다.

김 전 회장은 우리 농업 농촌이 FTA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이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도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생명산업인 농업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농촌지도자회원들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한 것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공덕파출소, 치안역량 강화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 공덕파출소(소장 이정주)가 수확기 농산물 절도예방 특별 활동 기간 중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주 공덕파출소장은 8일 공덕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마을 이장 28명을 상대로 지역 치안역량 향상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 소장은 한햇동안 파파출출려 수확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모두 경찰의 눈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밝은 옷 착용 등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와 반사경 부착 등 필요조건 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덕파출소에서는 전 경찰관이 매일 모든 마을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산물 절도예방, 4대약 근절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별 취약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공덕면에서는 올해 절도발생이 단 3건에 불과해 지난해 대비 70%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27명으로 구성된 남·여 공덕자율방범대를 주축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치안참여와 공덕면 모든 마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치안인프라 확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보건소 금연아파트 현판식

김제시 보건소는 오는 18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하동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주민대표, 입주주민, 보건소 관계자 등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 및 현판식 행사에 관해 8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6년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추진 경위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입주주민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힘을 모아준 주민께 감사하며 앞으로 금연도시 김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입주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하동주공아파트 공동주택관리사, 성덕하이빌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단지 내 공동공간을 금연구역 지정으로 신청하였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3개소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정읍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및 건강하고 바른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11월중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만 11 ~ 18세 여성 청소년 기초생활 수급자중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여성청소년이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리대를 현물로 지급하여 3개월분을 1세트 지급할 예정이고, 지원시점은 해당거주지 등 사무소 및 보건진소에서 11월 21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단 상동지역과 수성동지역은 생리대 보건진소와 보건소에서 수령가능하며 대상자 가족에게 먼저 안내문 및 신청서를 보내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오면 신청처 확인만으로 생리대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대상자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들 지원은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에서 문인협회 대표들 모인다

### 17개 지회 175개 지부의 임원들 모이는 전국 행사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사)한국문인협회 제36차 전국 대표자대회(이하 문인 전국대회)가 정읍에서 열린다.

첫 날인 23일은 정읍시문화회관에서 제2회 전영택문학상 시상식과 우수 지부 모범사례 발표, 그리고 정읍의 문화 자원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고 이어 둘째 날인 24일에는 정읍시 투어에 나서 역사와 문화유적,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문인 전국대회는 매년 전국 지자체 중 한 곳에서 치러지는 행사이다. 한국문인협회 산하 17개 지회 175개 지부의 임원들이 모이는 문인들의 전국 행사이다.

시와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는 "300여명의 전국 문인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정읍사 예술회관을 비롯한 정읍시 일원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가요인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의 고장이자 가사문학의 효시인 삼춘곡(賞春曲)의 고장으로,

숙한 문학작품의 탄생지이자 수많은 문학인들의 족적이 남아 있는 고장이다"며 "정읍사를 테마로 조성된 정읍사공원과 삼춘곡의 저자인 정곡인이 머물렀던 칠보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생기 시장은 "정읍의 문화자원과 정읍이 수준 높은 문학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 행



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정읍의 문화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고 이들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발전 방안 등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의 문인과 정읍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들은 고전뿐만 아니라 근현대 문학사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은 연가의 박정만 시인, 엄마를 부탁해의 소설가 신경숙, '완장'의 소설가 윤홍길, '외로운 식량'의 박찬 시인, 박성우 시인 조성된 정읍사공원과 삼춘곡의 저자인 정곡인이 머물렀던 칠보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김제시 성덕면 '농업인의 날 준비' 한창

김제시 성덕면은 8일, 제7회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한 관련 사회단체 농촌지도자회,농민회농업경영인회(생활개선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회의내용은 제7회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관련 추진계획(안) 및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참여인원과 방법, 단체별 참여 역할 분담 및 행사운영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로 마련됐다.

'보람있는 농민, 사랑받는 농촌, 함께 만들어가는 성덕면'이란 슬로건으로

로 한자리에 모인 성덕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한 농업인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성덕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포함해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생활개선회에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여 참석한 농업인에게 대접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특산품인 사나래영농조합의 건나물세트, 오성영농조합의 오색쌀, 덕정식품의 강류제품, 하늘선남포영농조합법인의 누룽지를 선보일 예정이며 농업인의 화합 한마당(명랑운동회) 등 체육행사가 펼쳐진다. /김제=곽노태 기자

## 탄허스님 생가복원 위한 현장방문

### 김제시장 등 10여명

김제시는 8일 이견식시장, 나병문 김제시의회의장, 유진우 의원을 비롯한 의회 전문위원 및 관계공무원, 불교계 관계자 등 10여명이 탄허스님 생가 현장을 방문 탄허스님의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탄허스님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을 대동리 300번지 일원은 현재 대밭으로 있으며 건축흔적은 남아있지 않

나 1995년 생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탄허스님은 1913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에서 독립운동가인 을체 김홍규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934년(22세)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하여 출가하였고, 1989년(71세)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반했다.

현실적이며 직법적인 예언으로 유명한 탄허는 세계열강들의 관계와 미래상을 예측하였으며, 변화될 세계상

로 자연재해와 핵으로 인해 전 세계의 70%(정도의 타격을 입을 때 한국도 피해를 보나 한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주장했다고 전해 내려온다.

또한 도쿄대학의 동양학 세미나에서 화엄학에 대한 특강과 국립타이완대학교 심포지엄에서 비교종교에 대한 특강을 하여 세계적인 석학으로도 유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제시는 이번 탄허스님 생가 현장방문으로 예산 확보 및 사업방향, 불교계의 협조사항을 받아 2017년 이후 생가 복원 및 기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여성단체협의회,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김제 만들기

### 지평선수상카페 수익금으로

김제시(시장 이견식) 여성단체협의회 강순애 회장과 회원들이 동절기를 맞아 훈훈하고 따뜻한 김제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오후 2시에 소재한 한 독거노인 세대에서 강순애 회장의 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행사기간 동안 지평선 수상카페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불꽃이 필요한 이웃 19세대에 약 3,500여 장의 연탄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특히 올 해는 7년 만에 연탄값이 15% 가량 올라 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빈곤층의 에너지 바꾸어 신청 시기를 놓친 세대에 연탄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시기적절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순애 회장은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각 단체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지역과 이웃을 보듬고 살피는 참된 여성서로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갈 때 넉넉하고 인심좋은 우리고장 김제는 더욱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해 연탄나눔 지원대상은 현지 실정과 세대별 형편에 밝은 일선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남선)가 부안군 생활기술교육이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300명의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 부안농기센터, 생활개선회 기술교육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남선)가 부안군 생활기술교육이 8일부터 9일까지 2일 간 300명의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농 식품 6차 산업의 주인공들은 여성농업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 회원들은 한정된 농촌 자원을 이용한 6차 산업화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농작물 수확 후 가공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처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단체활동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또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 농촌체험농장 운영 등 소득사업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SNS와 블로그에도 적극 참여해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농 식품 신뢰성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기술교육이 농 식품 동향을 이해하고 6차 산업화에 대한 동기부여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